전환'96 : 화학산업의 의식변혁을 추구하며 …

"중소기업 부도와 정책의 오류"

중소기업청이 정식 발족, 사업 수행에 고초를 겪고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에게 한가닥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정책적으로나 금융재정면에서 깊은 설음을 수없이 당해왔다. 공장을 설립하거나 확장 또는 이전하려면 수없이 거쳐야 하는 행정과정은 말할 것도 없고, 공무원들의 구박은 헤아리기조차 힘들 것이다. 이것 묻고 저것 따지고 이트집 저트집에 사업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 한두번 가져보지 않은 중소기업 경영자는 없을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사업자금이 필요해 은행문을 두드리면 문턱에서 발길로 차이기 십상이고, 쥐꼬리 융자에도 담보는 필수품이다. 그러다 보니 은행돈을 호주머니돈 같이 쓸 수 있는 대기업들로 부터 흘러나온 사채를 얻어쓸 수 밖에 없는 것은 필연일 것이다.

특히, 대기업들로 부터 받는 설음과 고초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온갖 정책적 지원이나 금융재정적인 특혜를 다 누리면서 납품대금 지급을 2달, 3달 심하면 7~8개월씩 미루기 일쑤이다. 그것도 현금이 아닌 3~4개월짜리 어음을 지급하면서 말이다. 이것까지도 양호한 편이다. 하여튼 납품에서 수금까지의 과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보통 제품을 개발하거나 개발된 제품을 하청생산하게 되면, 이것저것 트집잡는 것은 일상화되어 있고, 설혹 납품하였다 하더라도 이핑게 저핑게 대면서 납품서에 도장 찍기를 미루기 수차례 거친 다음에야 정식 납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대기업의 담당자에게 잘 보여야 하도급도 받을 수 있고, 대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명절과 휴가철을 잊어서는 중소기업 사장 자격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중소기업 명의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만들어 뇌물을 받쳐야 하는 상황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원료가격이 오르면 대기업들은 두말없이 즉시 가격을 올리면서 거부하노라면 수급이 타이트할 때 보자는 협박에 시달려야 하고, 원료가 인상에 따라 제품가격을 인상할라치면 대기업들이 동의해주지 않음은 물론 하청을 바꿀 수도 있다는 또다른 협박에 시달려야 한다. 하청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인상분의 60~70%, 심하게는 20~30%만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다.

최근 들어서는 대기업들이 원가절감을 통해 경영을 내실화한답시고 납품가격을 일방적으로 인하해줄 것을 요구해와 사업을 그만 두어야겠다고 하소연 하는 중소기업인들이 많이 늘고 있다. 대기업들의 기침소리만 들려도 감기에 걸려야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이 견딜 수 있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부도를 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중소기업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90년대 들어 부도를 낸 중소기업수가 매년 1만개가 넘고, 95년에는 1만4500개의 중소기업이 부도를 냈다고 한다. 경기는 호황이었는데, 망해가는 중소기업은 늘어만가는 것이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원인을 따져보면,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결국은 중소기업정책 부재,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소외, 대기업의 횡포, 기업 스스로의 자구노력 부족 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을 가장 아프게 하고, 중소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정부정책 및 금융정책으로 부터의 소외일 것이다. 대기업의 횡포는 아무리 외쳐보아도 하루아침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고, 자구노력 또한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즉 기술개발이나 품질향상을 소홀히 해 대기업으로 부터 홀대받거나, 자구노력이 부족해 부도를 내는 기업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중소기업 스스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고, 정책적 금융적 지원만 원활하다면 성장할 수 있는데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 결여에 따라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에게는 중소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설음을 당해야 하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중소기업청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업무가 바로 정부가 저질러온 대기업 편향적이고 중소기업을 무조건 홀대하는 정책적 오류를 바로 잡는 일일 것이다.

그것은 중소기업을 사랑하고,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제대로 평가할 때 가능한 일이고, 그러할 경우에만 진정한 의미에서 중소기업 육성책이 나올 수 있다고 믿는다.

중소기업 부도, 그것도 흑자도산이라는 믿기지 않는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애정있는 중소기업 육성책을 기대해 본다.

<화학저널 1996/2/26>